

“올해 어르신 1687명에 일자리 제공합니다”



◇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앞줄 이형주 회장, 뒷줄 왼쪽부터 이혜진 총무, 서옥순 사무장, 유순상 부장, 박흥순 센터장)

취업 희망자는 전원 취직, 경로당 소득증대사업 확대 노인회관 11월 완공, 읍면분회 경로당과 유대강화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 2018년 주요 역점사업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지회장 이형주)는 올해 47억5000만 원을 들여 1687명의 노인일자리를 사업을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한다.

홍천군지회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편안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노인취업센터를 활성화시켜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노인을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취업희망자는 전원 취업시킨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노인일자리 200~300개 확대했다.

또 경로당과 마을공동사업장마다 고사리, 사과 등을 생산해 소득증대사업을 높이는 노인복지증

진사업과 노인대학을 활성화해 여가선용 및 자기개발을 유도하고, 읍면순회 이동노인대학을 확대한다.

이어 경로당별로 노인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홍천군 노인회관 건립을 계기로 다양한 노인복지시책을 전개한다. 홍천군 노인회관은 홍천읍 진3리 종합사회복지관 옆에 40억 원을 들여 3월 착공하고, 11월 완공된다.

노인회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420㎡ 규모로 노인취업센터, 일자리센터, 시니어클럽, 체력단련실, 건강증진실 등이 들어선다.

홍천군지회는 10개 읍면 분회와 205개 마을 경로당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강화해 노인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인권의 신장에 힘쓰는 계획이다. 올해는 경로당 10곳이 신설된다.

홍천군지회는 사무국과 10개 읍면 분회장, 노인대학, 취업지원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다. 홍천지역 노인인구는 1만5899명으로 전체인구 7만340명의 22.6%를 차지하고 있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형주 노인회장은 “올해는 노인연찬회 등을 통해 어른다운 노인, 존경받는 노인, 젊은이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의식개선에 힘쓰겠다”며 “이를 위해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도록 일자리사업을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박세구 기자

*홍천실버신문에서 홍천관내의 다양한 정보 및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홍천실버신문은 55세 이상 어르신 기자단이 만들어 가는 신문으로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나아가 노인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양한 정보와 이야기를 제공받고 싶은 분은 구독신청 바랍니다. 홍천군노인복지관으로 구독신청서를 제출해주시거나 전화로 신청하세요!

*홍천실버신문은 개인 및 단체 광고를 받고 있습니다. 매월 1일자 2,000부가 발송되고 있으니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광고료는 공익성 유무 확인 후 홍천실버신문 광고료 규정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 홍천군노인복지관 2월 행사일정

일시	장소	내용
2018. 02. 08.(목) 13:00~	홍천군노인복지관	홍천군기금사업 '반갑다친구야' 사업설명회
2018. 02. 12.(월) 10:00~	홍천군노인복지관	설명절행사 '적사대회'

CONTENTS

02 - 홍천군노인복지관 NEWS

03 - 귀농·귀촌인 이야기

04 - 경로당 탐방

05 - 유적지/전설

06 - 다문화가정이야기

07 - 우리 직장 칭찬릴레이

08 - 홍천군노인복지관 소속 미술반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우정상 수상

- 기자칼럼



온통 영어세상! 모르면 나만 손해

나이 들었다고 영어 몰라도 되는 시대는 지났다
배움 절실해 학업성과 좋아 수업일수 확대 희망



◇ 홍천군노인복지관 영어ABC반

“영어공부로 인생이 즐거워요.”

홍천군노인복지관 평생교육프로그램인 영어 ABC반원(반장 배덕수·63)들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영어공부를 하게 되어 너무 기쁘다”며 배우는 즐거움을 이렇게 표현했다.

이들은 매주 월요일(오전 10~12시) 노인복지관 본관 3층 배움터2 교실에서 황영숙 강사의 지도를 받고 있다.

배 반장은 “늦긴 했지만 영어공부가 이렇게 재

미있을 줄 예전에 미처 몰랐다”고 했다. 그는 “처음에는 망설였는데 시작하길 잘했다. 세상은 온통 영어 세상인데 나만 모르는 것 같아 소외감을 느꼈다. 영어는 알아갈수록 재미있고 아는 만큼 삶의 질이 풍부해진다. 노인이라고 당연히 모르는 시대는 지났다. 스마트폰으로 문자도 보내고 검색도 해보고 다양한 기능을 사용해보면 정말 재미있다. 영어를 영원히 모르고 살 뻔 했는데 영어를 배우게 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선물

이다. 이제는 간단한 생활영어도 할 수 있어 늘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했다.

노영식(81) 씨는 “60년 전에 영어를 배웠는데 이제는 다 잊어버려서 다시 시작했다. 아들은 미국, 딸은 스위스에서 살고 있어 더 늦기 전에 자식들이 사는 나라에 가보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하트마 간디가 한 말을 인용했다. “사람은 내일 죽는다 생각하며 살고,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며 배워야 한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게 언어가 아닌가. 우리말은 기본, 영어는 필수다. 다들 자식농사 잘 지었다고 부러워하는데 영어 공부까지 한다니 대단하다는 말을 듣는다. 늦다고 생각할 때가 빠를 때가 아닌가”라고 했다.

김영숙(80) 씨는 요즘 영어공부에 흠뻑 빠져 있다. 매일 영어단어와 생활회화 암기 등으로 하루해가 짧다고 했다. 그는 “정말 영어를 잘해보고 싶다”고 했다. 지난시절 항상 머릿속에는 영어공부에 대한 욕구가 잠재해 있었는데 이제 그 꿈을 이루게 되어 너무 행복하다고 했다.

황 강사는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잘 따라오는데 놀랐다”고 했다. “아마 배우는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열성으로 가르치게 된다. 뭐든지 필요를 느끼고 배움이 절실하면 그만큼 학업 성과도 올라간다. 우리 반 모두 열성적이라 수업분위기가 너무 좋아 수업일수가 일주일에 한 번으로는 부족하다”며 “늘려주길 바라지만 복지관 여건상 쉽지가 않아 가르치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다”고 했다.

황 강사는 미국 시애틀에서 18년간 살다가 홍천으로 귀촌해서 지역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조정철 기자



홍천군 자원봉사단체 협약



홍천군노인복지관은 1월 9일 진달래로타리 클럽회장(김영순)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홍천지사장(김철호), 새마을지도자협회장(홍성기), 한사랑라이온스 클럽회장(양덕희), 재홍호남향우회장(조영재), 홍천읍적십자회장(이순옥), 한민족통일 여성회장(민경란), 북방여성의용소방대장(박경희), 사회복지총동문회장(김정숙), 한국자유총연맹회장(최옥남), 소비자교육회장(이영표) 단체와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했다.

홍천임업 난방용 화목 8톤 후원

홍천임업(대표 변연길)은 1월 7일 홍천군노인복지관에 난방용 화목 8톤(80만 원 상당)을 후원했다.

흥부네숯불무한갈비 무료 점심식사 후원

흥부네숯불무한갈비(대표 박정두)는 1월 11일 홍천군노인복지관 이용회원 150명에게 무료 점심식사를 후원했다.

귀농·귀촌인 이야기(13) 백학경·정승현 씨 부부

야생화 기르려고 홍천 정착 '5년 고생 끝에 성공'



◇ 백학경·정승현 씨 부부는 5년전 귀농해 야생화단지를 운영하고 있다.

수차례 실패 후 전국야생화협회장 등 맡아 후배 귀농인 멘토 비닐하우스 사는 고생 '야생화 힐링단지 조성' 꿈으로 극복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는 올 겨울 가장 추운 날 홍천강 인삼송어축제가 열리고 있는 홍천강변 먹거리 코너 천막 안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백학경(59) 씨를 만났다.

전화로 취재의사를 밝히고 만남을 약속할 때만 해도 별로 말씀드릴 것이 없다고 했으나 막상 만나서 속마음을 들여보니 그동안의 고통과 슬픔에 눈물까지 흘렸다.

그는 고향이 창원이라고 했다. 그곳에서 공부를 마치고 농협에 근무하던 중 남편(정승현·66) 씨를 만나 결혼해 자녀 4명을 두었다. 셋은 결혼했다. 늦둥이 아들(18)이 중학교 1학년 때 홍천으로 이사 왔다. 그가 홍천으로 귀농한 것은 취미로 30년을 키우고 있는 야생화 때문이다. 이제는 취미가 직업이 됐다.

귀농 결심을 한 후 전국 귀농운동본부에서 귀농

교육을 받았다. 전국을 투어하며 이주할 지역을 물색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홍천을 방문해 터미널에 내렸을 때 고향 창원의 옛 모습과 비슷하고 친근감이 들어서 홍천으로 결정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고 했다.

홍천은 서울과 가깝고 남편의 지인들이 서울에 있어서 더 좋았다고 했다.

창원에서 기르던 야생화를 계절별로 옮겨 심는데 남편이 트럭으로 1주일에 한 번씩 날랐는데, 모두 옮기는데 1년이 걸렸다. 남편도 야생화를 이주시킨 후 홍천으로 왔다. 마침 홍천에 취직이 돼 직장생활과 야생화를 돌보는 일을 병행하고 있다.

처음에는 홍천에서 야생화 키우기가 쉽지 않았다. 창원에서 잘 자라던 열대성 식물들이 모두 죽었고 옮겨 심은 야생화들이 가뭄이 심할 땐 물이

부족해 강에 나가 물을 길어오는 등 힘들었다.

그는 홍천읍 태학리 야생화단지(3만3000㎡)를 운영하고 있다.

귀농 후 가장 어려웠던 것은 원주민들과의 갈등이었지만 남편의 위로와 격려가 큰 힘이 됐다. 이제는 든든히 뿌리를 내렸고, 전국야생화협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귀농귀촌 멘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야생화 전문가로 교육과 강의, 상담을 통해 야생화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다. 전국 야생화 축제나 전시회에 홍천이란 이름을 앞세워 홍천을 홍보하고 다른 도시에서도 그의 작품만으로 야생화축제를 할 때도 있었다고 했다.

홍천으로 귀농한지 어느덧 5년이 됐다. 그동안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심은 꽃들을 3번이나 옮겨 심어야 하는 가슴 아픈 사연도 있었지만 이젠 자리가 잡혔고 전국야생화 생산자협회와 인터넷 등을 통해 수천 본 이상을 판매하고 있다. 야생화는 3년이 지나면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해 수입이 많아지고 있다. 그는 야생화 보급에 앞장서고 있으며 지역봉사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창원에서도 각종 봉사활동으로 창원시장·경남도지사상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홍천농업기술센터 우리음식연구회원으로 각종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야생화 전시 중에도 봉사활동에 앞장섰다.

홍천 귀농 후 어느 정도 안정된 그는 “자신의 땅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야생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눈으로 마음으로 즐기며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꾸는 것이 꿈”이라고 했다.

귀농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을 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막연히 귀농을 생각하고 농촌으로 가면 뭔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으나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가능한 한 자신의 전공분야이거나 전직과 관련된 부분을 찾아 귀농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3년 동안 일을 찾지 못해 수입이 없을 경우, 막노동이라도 할 각오로 귀농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그녀는 “비닐하우스 안에 살고 있는데, 처음 홍천 올 때보다 체중이 10kg 정도 빠지고 얼굴도 많이 늙었다”며 “비닐하우스는 추위와 더위에 취약하겠지만 앞날에 이루어질 꿈을 생각하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주름진 얼굴에 미소를 띠었다.

김순화 기자



경로당 탐방시리즈 (44) 서석면 검산1리 경로당

2017년 홍천군노인회 주관 건강·기공체조 은상 수상



◇ 서석면 검산1리 경로당(회장 김용균·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

1년 내내 경로당 개방 회원 건강 지켜주는 사랑방 인삼송어축제 면 대항 줄다리기서 우승 단합 과시

홍천 서석면 검산1리 경로당은 지난해 9월 마을회관으로 사용되던 건물을 재건축을 통해 입주했다.

회원은 50명(남자 24명, 여자 26명)이다. 검산1리 경로당은 1년 내내 개방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회원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

경로당회원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다. 주민들 중 한의사가 있어 건강을 보살피 주고 있다. 홍천군보

건소에서 치매예방교육, 기공체조, 요실금강좌, 독감예방 강의 등 건강예방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그 덕분에 지난해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에서 주관하는 경로당 연합회에서 건강체조와 기공체조 부문에서 은상을 받았다.

경로당 회원 중 김덕기(91) 어르신은 장수노인으로 건강을 유지하면서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고 있어 경로당의 정신적 지주역할을 하고

있다. 어르신은 6·25 참전용사이기도 하다. 여성회원들은 매일 식사준비로 회원들과의 단합에 일조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영환 서석면 분회장의 도움으로 경로당 회원들이 홍천강 인삼송어축제장을 방문해 여러 가지 행사를 구경하고, 줄다리기 면대항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강한 단결력을 과시했다.

김용균(85) 회장은 1995년 귀농

했다. 적지 않은 나이에 불구하고 경로당이 마을 입구에 있어 이동이 불편한 회원을 위해 자신의 자동차로 태워 오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김 회장은 검산1리에 홍천군 귀농귀촌센터가 설립돼 전국에서 귀농귀촌인들이 방문하는 등 귀농귀촌마을로 알려지고 있다며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판매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산1리 주민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고 있다. 마을에 거주하는 70가구 중 30가구가 귀농한 귀농귀촌마을이다.

김 회장은 “올해 경로당 회원이 모두 건강하고 단합하면서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다”며 “서석면지역 모든 경로당 회원들에게 연중으로 일자리가 생겨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안태수 기자

◇ 경로당 임원 현황

직책	성명	연령	직업
회장	김용균	85	무
부회장	하천호	81	게이트볼강사
부회장	이종선	68	주부
감사	송대선	78	농업
사무장	박희구	71	농업

☎ 033-433-7736

고시조

내게 좋다하고

- 변계량 / 조선초기대제학

내게 좋다하고 / 남 싫은 일 하지 말며
남이 한다하고 / 義(의) 아니면 좇지 마라
우리는 천성을 지키어 / 생긴 대로 하리라

·해설 :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는 뜻이다. 눈앞의 이(利) 끝을 보면 그것이 올바른 것인지 생각하라는 말이다. 이 작품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와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조정철 기자

사자성어

首丘初心(수구초심)

수구(首丘)는 “언덕에 머리를 둔다”는 뜻이고 초심(初心)은 “근본이 되는 마음가짐”이다. 여우가 죽을 때 제가 살던 곳을 향해 머리를 둔다는 이야기에서 유래되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일컬으며 또한 자기 자신의 근본을 잊지 않음을 뜻한다.

조정철 기자

유적지 탐방(23) 원천군 변수 영정

조선시대 전형적인 공신도 제작 연도 불명



◇ 원천군 변수 영정

원천군 변수 영정은 조선 중기의 무신인 변수(邊修 1447~1524)가 중종반정(1506년)에 참여한 공을 인정받아 정국공신이 되어 원천군으로 봉해진 뒤 당시 도화서 화공이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 영정은 1993년 6월 3일 강원도 문화재자료 118호로 지정됐다. 가로 91Cm×세로 144Cm 크기의 비단 채색이다.

변수는 중종반정(1506년)에 참여한 공으로 정국공신이 되어 원천군으로 봉해졌고 중종 6년(1511년) 정조사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충청도와 함경도의 수군절도사를 역임했다.

이 영정은 족자형태의 전신좌상으로 머리에 사모를 쓰고 짙은 푸른색의 관복을 차려입고, 오른쪽을 바라보며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채색했다.

가슴에는 학과 구름무늬가 있는 흉배를 하고 있고, 옷자락 밑에는 옆트임을 두어 안쪽에는 흰 속옷이 보인다.

눈 윗부분은 검은 선, 눈 아랫부분과 입술은 짙은 갈색 선으로 표현한 기법은 조선 중기 공신도상의 일반적인 표현 방법을 따르고 있다.

전형적인 조선시대 공신도의 모습으로 공수한 자세나 의자에 방석

을 붙들어 맨 끝의 표현, 단령의 트임 새 등은 정국공신 이우의 상과 같은 형태를 하고 있으나, 바닥이 채전이 아니라 돛자리이고, 단령의 트임 형태, 얼굴명암 표현, 부드러운 옷 주름 등을 고려해 볼 때 후대에 보수하면서 다소 변형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영정은 홍천군 북방면 역정평리에 변병필씨가 소지하고 있던 초상화이나 2009년부터 국립춘천박물관에 보관되고 있다.



박영권 기자

전설(23) 홍천 북방 도둔벌

도깨비가 놀던 곳 지금은 맥주공장 건립



◇ 홍천 북방 도둔벌

옛날 옛적에 홍천 강이 돌아 흐르고 북송아밭이 있고 언덕이 있어 '도둔'이라고 불려진 이름이다.

도둔에 한 집 두 집이 모여 17가구가 되었고 주민 56명이 웅기종기 모여 살았다. 논이 있다 하여도 천수답 조금 있는 척박한 땅이었다.

해마다 가을이면 동네 사람이 모여 힘을 합하여 마을 뒷산 금성산에서 소나무와 잡목을 베어 썰다리를 놓았다. 동네 사람들은 썰다리로 왕래했다.

동네 남자들은 썰다리를 놓고 아주머니들은 썰다리 놓는 마을 주민

에게 식사를 준비했다. 여름에 큰 장마가 오면 도둔벌은 섬 아닌 섬이 된다.

척박한 도둔벌은 어려움이 많았다. 장마에는 썰다리를 뜯어 강 언덕에 쌓아둔다.

물이 점차 줄어들면 옷을 벗고 홍천강을 건너가 불일을 보았다.

어느 날 동네 농부가 농사일을 하다가 청둥오리 떼가 날아가는 곳을 가보니 웅달샘이 있어 그곳에 우물을 깊게 파고 두레박으로 물을 올려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게 되었다. 동네에 밤이면 번쩍 번쩍 도깨비가 나타나서 동네에 피해를 준다고 하여 그 도깨비를 잡으려고 동네 사람들은 농기구를 들고 도깨비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도깨비는 잡히지 아니 하였다.

동네에 불량하다고 소문이 난 두 사람이 있었다. 두 사람은 동네에서 하는 일을 반대하고 조롱하였다. 매사가 비판적이고 부정적이었

다. 도깨비가 어디 있느니 썰다리가 무슨 소용이 있느니 하고 반대했다. 동네 사람들은 반대와 조롱 거리를 무릅쓰고 썰다리를 놓아 동네에 유일한 교통수단이 되었고 도깨비를 쫓으려고 동네 구석구석마다 허수아비를 세웠고 마을 한가운데 있는 서낭당에다 떡을 해놓고 동네에 우환이 없기를 빌었다.

농한기에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 큰 망치로 홍천강 돌 밑에서 동면하는 쏘가리, 꺾지, 탱가리들을 때려 기절시켜 잡아 매운탕을 끓여 동네에 회식을 함으로써 친목을 도모하였다.

도깨비가 놀던 도둔벌은 현재 하이트진로 공장이고, 강 건너편에는 홍천온천이 들어섰다. 마을 원주민들은 보상을 받고 이주했다.



이광명 기자

다문화가정이야기 (43) 홍천군 서면 아나리자 에프 파스트라나(42) 씨

“올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이 꿈”



◇ 아나리자 에프 파스트라나(42) 씨가 시모와 함께 밝게 웃고 있다.

가족 반대 불구 결혼, 딸 낳은 지 10년 만에 득남 운전면허 18년 만에 합격 농한기 때 식당서 일해

“올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도전해 꼭 취득하겠다.”

필리핀에서 시집와 홍천군 서면 길곡리에 살고 있는 아나리자 에프 파스트라나(42) 씨는 “음식 만드는 것이 좋아 요리학원에 다녀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전문음식점을 하고 싶지만 근처에 식당이 많아 꿈을 요양보호사로 바꿨다.”며 올해의 목표를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필리핀 서네그로스 바콜라도 메트로에서 아버지 로메로 파스트라나(77) 씨와 어머니 폴스나 필리피노 파스트라나 씨의 3남3녀 중 다섯째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금 제련소에서 관리업무를 맡아 20년간 일하다 퇴직했다. 그는 가정사정으로 고등학교 2학년을 중퇴하고 마닐라에 있는 백화점 의류매장에 6년을 다녔다.

평소 한국 사람과 결혼할 생각은 없었지만 농담으로 주변사람들에게 ‘필리핀 사람은 바람둥이라 국제결혼 할 것’이라고 했다. 통일교회 다니는 친구가 백화점에 찾아와서 ‘한국 사람에게 시집가는데 함께 가자.’고 했다.

1999년 9월15일 친구와 함께 통일교회에서 남편(정종혁·52) 씨를 만났다.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는 남편이 무서워 그만두려 했다. 교회 측 주선자가 “서로 손을 잡아보라.”고 해서 손을 잡으니 남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겉보기엔 무서운데 떨고 있는 남자의 모습에 웃음

이 나오고 마음이 동했다. 이를 후 교회에서 간단한 언약식을 올리고 남편은 한국으로 돌아갔다. 만남은 있었지만 남편을 꼭 선택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어서 결혼을 망설이고 있었다. 근처에 살고 있던 작은 아버지가 ‘가족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잘 생각해봐라!’며 말했다. 고향에 있던 오빠가 이 사실을 알고 그를 찾아와 때리고 야단치며 결혼을 반대했다. 오빠가 때린 건 처음이어서 너무 마음이 아팠고 충격이 컸다. 생활하던 집을 나와 친구 집에서 하루를 묵고 교회로 가서 3개월을 지냈다.

2000년 2월 12일 친구와 함께 한국에 와서 3월 16일 잠실체육관에서 합동결혼식을 했다. 그 후 남편이 원해 동네어른들을 모시고 서면 모곡복지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남편은 아버지 정재선(82) 씨와 어머니 이춘희(82) 씨의 3남2녀 중 둘째다. 모곡초등학교 졸업 후 부모님과 함께 임차농지를 포함해 1만 3000㎡에 농사를 지으며 한우 30여 마리를 키우고 있다. 10년 전 한우 축사도 새로 짓고 기계로 농작물을 거두지만 지금은 시부모 모두 연로해 건강이 안 좋고 남편도 팔이 아파 눈독에 잡풀을 깎기 어려울 만큼 농사일이 힘든 상태다.

시집온 후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고생했다. 고향에서는 끼니때마다 다른 생선종류의 반찬을 먹었지만 시댁은 된장국과 김, 김치볶음에 전부

였다. 그는 김과 된장국이 싫었고 매 끼니마다 올라오는 김치볶음에 질렸다. 고향생각도 나고 서러워 혼자 방에 들어가 울고 있으니 남편이 물었다. 그는 반찬이 안 맞아 밥을 먹을 수 없다고 했다. 남편은 모곡 마트에서 콩치통조림 2통을 사다주었다.

시집온 지 2년 후 딸 지현(17)을 낳았다. 3년 후 임신했지만 아쉽게도 유산한 후 여러 해가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자 나이 40살이 넘으면 출산이 힘들어 남편에게 수정관 임신까지 제의했다. 그러던 중 정말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아들 연우(5)가 태어나자 가족들이 모두 기뻐했다. 딸은 올해 홍천농고 원예과에 진학한다.

2003년 4월 20일 한국국적을 취득했으나 운전면허 취득은 어려웠다. 시부모님과 첫딸의 병원출입이 잦아 차량이 필요했지만 시골이라 대중교통 운행이 거의 없고 남편은 운전면허가 없었다. 그는 1종 운전면허 취득을 목표로 필기시험을 치렀지만 15번의 고배를 마셨다. 그래서 운전면허 2종으로 바꿔 3번의 시험을 치른 끝에 2007년 3월 17일 운전면허(2종)를 취득했다. 운전면허를 어렵게 취득했지만 바로 차량을 구입할 형편이 못됐다. 3년이 지나 시아주버니가 승용차를 구입해 지금은 편리하게 운행하며 볼일을 보고 있다.

2003년 딸을 데리고 남편과 같이 친정을 다녀왔다. 약속은 없었는데 양양으로 시집온 고향집 친구부부와 필리핀에서 만났다. 두 가족이 함께 세부 바닷가에 놀러가 해수욕도 하고, 레촌(통돼지 바비큐), 생선요리를 먹으며 20여일을 즐겁게 보내다 돌아왔다. 말은 안 통해도 손짓 몸짓으로 친정식구들이 남편에게 많이 먹으라며 챙겨주어 기뻐했다. 친정어머니의 사망으로 친정 아버지가 막내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어 몇 년에 한 번씩 친정에 다녀왔다. 지난해 7월 친정아버지의 건강이 안 좋아 20여 일간 필리핀에 머물다 돌아왔다. 동네에서 친목회원들과 매년 관광을 다니고 있고, 홍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체육행사 등은 적극 참여하고 있다.

농번기를 피해 인근 김치공장이나 유원지 식당, 서면에 있는 힐리언스 선마을 식당에서 가끔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가까운 설악면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고 있다. .



이옥희 기자

우리 직장 칭찬 릴레이 (45)

홍천군장애인복지관

장애우들이 내집같이 편히 쉴 수 있는 곳

홍천군장애인복지관(관장 허종국)은 2007년에 개관해 홍천지역 장애인들과 가족들,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위해 2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홍천군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백락사(百樂寺·대한불교조계종 15교구 통도사 말사)가 2017년 홍천군 장애인복지관 운영자로 지정됐다. 조직은 총무팀, 기획팀, 상담사회재활팀, 의료재활팀, 지역복지팀(재가장애인복지사업), 직업재활팀의 6개 팀으로 나누어 있다. 이용대상은 장애등급이 있거나, 편마비(눈에 띄는 장애)가 있거나, 지적능력이 부족 또는 발달이 느린 경우이다. 65세 이상이면 정상인도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 절차는 복지관에 문의한 후 상담을 통해 초기 평가를 진행해서 서비스 이용 계획을 함께 논의하면 된다. 병원에서 장애인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군청에 제출해서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은 후 복지관에 가지고 가면 된다. 운영자인 백락사는 화춘면 주읍치리에 있다. 사무실에 직원들이 모여 칭찬 릴레이를 시작했다.

기획팀의 이경심 팀장이 남미경(55) 조리사를 칭찬했다. 2007년에 입사한 남 조리사는 친화력이 좋고 정이 많아 복지관 이용자, 직원, 자원봉사자들을 세심하게 챙겨주고 신입 직원들에게는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대해준다. 식당에 오는 이용자와 직원들을 온화한 미소로 반겨주고, 식사를 맛있게 하도록 우스갯소리도 잘한다. 신선한 식자재 구입을 위해 식자재마트와 긴밀하게 협조하며, 식당이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철저히 하고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이용자들이 “집에서 먹는 밥보다 복지관에서 먹는 밥이 더 맛있다”고 할 때, 또 복지관에 견학 온 사람들이 “여러 복지관 식사를 해봤지만 홍천군장애인복지관 밥이 제일 맛있다”고 할 때 제일 보람을 느낀다”며 “홍천군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와 직원들 모두가 건

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백락사에서 행사가 있을 때는 언제나 달려가서 봉사에 참여한다.

남 조리사는 상담사회재활팀의 이희영(32) 사회복지사를 칭찬했다. 2012년에 입사하여 초·중·고교 방과후교실(학령기 발달장애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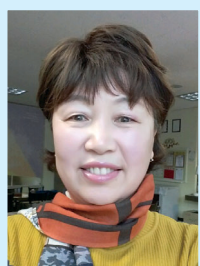
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먼저 청취하고 그들의 말에 공감하며 해답을 찾아준다. 어르신들과의 소통에 주력하며 무엇이든지 어르신들에게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정말 사회복지사가 딱 맞는 직원이다. 어르신들이 “우리가 죽기 전에는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여기 있어야 한다”면서 칭찬해준 것이 가장 기억에 남으며, 그들에게 감사하고 사회복지사를 직업으로 잘 선택했다고 했다. 그는 “우리 복지관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오늘이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박 복지사는 의료재활팀 김시명(24) 언어재활사를 칭찬했다. 2016년에 입사하여 소아·성인 언어치료와 언어진단평가를 담당하고 있는데, 늘 밝고 활달하며 복지관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여 너무 멋진 직원이자 믿음직한 동료이다. 복지관 막내답게 항상 밝게 웃으며 근무해서 동료 직원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고 있으며, 언어치료 대상자 증가 및 효과성 증대에 기여했다. 직원간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팀 접근이라든가 대화를 통해 소통하며, 가족 같은 마음으로 이용자들을 위해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치료 대상자가 언어치료의 효과를 봤을 때, 언어발달 지체아동이 또래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발달했을 때, 조음 음운 장애 아동이 발음에 오류 없이 정조음 할 때, 보호자에게 감사인사를 받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고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언어재활사로서 성인 및 아동을 위해 언어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사무실에 모인 직원들은 웃는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며 “복지관에 오시는 분들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파이팅을 외쳤다.

최정규 기자



남미경 요리사



이희영 복지사



박연옥 복지사



김시명 재활사

남미경 요리사 - 친화력 좋고 식당 위생관리 철저 밥맛 최고

이희영 복지사 - 방과후교실 운영 학생들로부터 신뢰도 최고

박연옥 복지사 - 활달하고 유머풍부 어르신과 소통능력 최고

김시명 재활사 - 언어치료 ‘이용자는 가족처럼’ 업무열정 최고

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과 홍·장·복(홍천군장애인복지관)선수단을 담당하고 있다. 다정다감하고 재치 있게 학습을 진행하고 정성을 다해 도와주려고 노력해서 아이들에겐 형, 오빠같이 친근하고 믿음직한 선생님이시다. 신체발달과 올바른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외부자원을 연계하여 볼링 등 다양한 체육활동을 진행하고, 학생들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해 외부자원을 연계하여 바리스타교육도 실시했다. 체육수업 시간을 이용해서 체력이 좋은 학생에게 포환 연습을 시킨 후 지난 5월에 강원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에 출전했는데 금메달을 따는 쾌거를 이루었다. 그는 “생일 때 학생들이 깜짝 파티로 축하를 해줘서 매우 감동하고 큰 보람을 느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이 복지사는 박연옥(38) 사회복지사를 칭찬했다. 2016년에 입사하여 기획팀에서 기획홍보 및 교육과 노인주간보호실을 담당하고 있는 박 복지사는 활발하고 긍정적이며 꼼꼼하게 메모하는 습관을 가져 매사에 빈틈이 없으면서도 유머가 풍부해서 직원들을 항상 기분 좋게 해준다. 친화력이 좋아 처음 보는 사람과도 잘 어울리

그림에 대한 설렘으로 '행복했던 1년'



◇ 홍천군노인복지관 소속 미술반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아름다운 노년을 그리다' 우정상 수상 과거 현재 미래 표현 작품들, 전국청춘제에 전시 성취감 만끽

홍천군노인복지관 소속 미술반

"2017년은 70년 동안 가슴속에 품고 숨겨왔던 그림에 대한 설렘으로 보냈다. 그림이 나의 삶에 얼마나 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몸소 느낀 시간이었다."

홍천군노인복지관 미술반 반원 9명이 2017년 3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1년 동안 문화체육관광부

와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최한 '아름다운 노년을 그리다'라는 미술프로그램에 참여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정상을 받았다.

우정상 수상자들은 김관자, 김선하, 박순애, 박시영, 박영권, 류명애, 이석환, 이진순, 전옥순 씨 등 9명이다. 이들 작품들은 지난 연말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두근두근 청춘제에 전시됐다.

이들 작품들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그리고 꿈이 담긴 하나의 주제에서 떠오

르는 각자의 생각과 기억, 느낌, 상상을 오리고, 붙이고, 그리며 만들었다.

과거의 주제는 태양을 그렸다.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다니오는 광경을 묘사했다.

현재의 주제는 나무를 그렸다. 다양한 속에서 규칙을 갖고 성장하는 나무의 모습을 공예철사로 표현했다. 나무를 합심해 제작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향상됐다.

미래의 주제는 나를 그렸다. 각자의 초상화를 팝아트로 표현하며,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각자의 창작에너지를 표현했다.

이들 9명은 '아름다운 노년을 그리다'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미술뿐 아니라 다방면에서 삶의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풀어내고 일상에서 예술을 부담 없이 접하고, 즐기며, 자연스럽게 향유할 수 있었고, 미술작품을 서로 공유하고, 감상하며 격려하면서 행복지수가 높아졌다고 했다.

또 평소 미술이라면 어렵게만 느껴지고 쉽게 다룰 수 없는 분야로 해낼 수 있을까하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우정상 수상으로 자신감을 얻게 됐다며 우리의 일상영역이 미술작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이들은 미술작품을 완성했을 때의 성취감을 만끽했다며 서로의 열정과 잠재된 끼와 품고 숨겨놓았던 재능을 알고 새로운 창작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영권 기자

기자칼럼



허 남 영

홍천실버신문 기자

삼강오륜 중에는 장유유서(長幼有序)라는 말이 있다. 일반적으로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는 말로 대변된다. 하지만 '모든 것이 연장자가 먼저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안된다.

장유유서는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 차례와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지, 어른이 우선순위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음식은 어른이 먼저 먹어야하고, 나귀는 어린이가 먼저 타야 한다. 어른이 음식을 먼저 먹은 후, 뜨거우면 식히고 차면 덥혀서 어린이에게 먹일 수 있는 것이다. 매우면 먹이지 않을 것이다. 나귀는 다리 짧은 어린이를 먼저

태우고 힘 있는 어른이 나중에 타야 안전하다. 물론 이런 생활 가운데 예의(매너)도 곁들여 져야 한다.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데 할아버지가 수저를 들기 전에 손자가 냉큼 밥을 떠 넣는다면 올바른 예의라 볼 수 없다. 직장이나 사회집단의 회식 자리에서도 건배사가 있은 후 잔을 비우는 것이 상례이다. 장유유서는 연장자의 연소자에 대한 사랑과 연소자의 연장자 존경이 어우러진 신뢰의 사회 지침이 되는 것

갖추고 서로 배려하는 삶을 지속하면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장유유서를 갑을 관계에 대입하면, 갑은 을을 살피주고 을은 갑을 이해하는 상생의 뜻이 담겨져 있다.

오륜에는 장유유서 이외에 부자유친(父子有親), 군신유의(君臣有義), 부부유별(夫婦有別), 붕우유신(朋友有信)이 있다.

이 같은 오륜의 바탕에는 강자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는 너그러움이 깔려 있다.내리

적이어서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군신유의는 오늘날 직장 상하관계에서 되새겨 볼 교훈이다. 상급자는 업무를 행함에 있어 의롭게 해야 하고, 하급자는 의로운 수행을 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헌장에는 '부당한 명령은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문화 되어 있다. 부정할 일을 알고도 입을 열지 않는 것이 의리(義理)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의리에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마땅히 지켜야할 바른 도리가 있어야 한다. 불합리한 것을 의리로 포장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 시대는 임금이 없고 신하도 없으니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을 임명에 견주어, 대통령 영부인을 국모라 호칭하는 사람을 본 일이 있는데, 대통령은 법에 따라 국민이 선출하여 임기 동안 역할을 부여한 것으로 헌법에 의해 위임된 지도자이다.

민주주의의 의(義)자나 군신유의의 의(義)자가 의로운 의(義)자이니 세상의 흐름은 의(義)를 바탕으로 물 흐르듯 하면 큰 탈이 없을 듯하다.

장유유서(長幼有序)의 참뜻은?

이다. 더 나아가 사회 구성원들 모두 연장자는 연소자를 배려하고, 연소자는 연장자를 존중하는 미덕이 발휘되면, 사회 분위기가 훈훈해질 것이다.

'객지 벗 10년'이란 말이 있다. 이 말은 '객지에서 만난 사람은 10살 차이가 나도 맞먹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객지에서 만난 사람도 10년을 잘 지내면 벗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낯설었던 사람이라도 장유유서의 예의를 잘

사랑이라고 했던가? 어른이 젊은이를 애뜻하게 보살피는 만큼 젊은이는 어른을 받드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부부유별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사이에서 서로의 존중받는 역할과 영역이 있어서 상호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임금님도 중전의 영역을 침해하지 못하는 사극을 자주 봤다. 아내가 남편의 보조 역할 담당자, 흔히 말하는 집사람이 아님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오륜을 깊이 살펴보면, 전통적이고 봉건